

방탄소년단, 미국 LA 콘서트서 역대 흥행 기록 6위



그들 방탄소년단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펼친 'BTS 퍼미션 투 스테이지-LA'를 통해 393억9000만 원을 벌어들였다. "BTS가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미국 LA타임스의 보도처럼 역대 흥행 기록을 썼다. 사진은 무대에서 '킬 군무'를 선보이는 모습. 사진제공 | 빅히트 뮤직

4회 만에 티켓 수입 394억원... '역사'가 된 BTS

역대 1~5위 공연 횟수 최소 8회 4회 만에 6위...사실상 최고 흥행 굿즈 합하면 1000억원 돌파 예상 빌보드 연말 결산 9개 부문서 1위 내년 3월 서울 콘서트도 두근두근

●4회 394억원...미국 18년 만 최대 기록
방탄소년단은 11월28·29일(이하 한국 시간)과 이달 2·3일 LA 스포츠스타디움에서 '퍼미션 투 스테이지-LA' 공연을 모두 4차례 펼쳤다. 총 관객은 21만 4000여명으로, 객석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티켓 가격은 155.86달러(19만 원)였다.

미국 음악매체 빌보드는 5일(한국 시간) "BTS가 이번 공연에서 모두 3330만 달러(393억9000만원)를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9년 만의 가장 큰 흥행 기록"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공연 티켓 판매액을 집계하는 '빌보드 박스스코어'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이번 성과는 2012년 핑크 플로이드의 로저 워터스가 아렌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한 콘서트에서 38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이후 단일 공연장에서 열린 최대 티켓 판매 규모이다. 미국에서 열린 콘서트 기준으로는 18년 만의 가장 큰 수치이며,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공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글로벌 박스스코어 역대 흥행 순위 6위, '3000만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빌보드는 "역대 흥행 1~5위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전체 횟수가 방탄소년단의 4회 공연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은 점을 감안하면 더욱더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역대 5위권인 스팅스 앤드 테이크 댓 공연은 각각 17회·8회였고,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10차례, 워터스는 9차례 공연했다.

빌보드는 비영어권 그룹으로서 박스스코어 대기록을 세웠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비영어권 가수(그룹) 중 단일 콘서트로 3000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스포츠스타디움 공연을 빼고 유튜브 씨어터, 3일 콘서트 온라인 생중계 등 매출을 포함하면 수치는 더 올라간다. 미국의 콘서트 투어 박스오피스를 집계하는 '투어링데이터'는 총 6160만달러(7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공개했다. 또 공연장 주변에서 팬들이 산 굿즈의 매출도 빠져 있다. 이를 포함하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서울에서 '흥행' 있는다!

이들은 빌보드 연말 결산 차트에서 듀오·그룹 부문 등 모두 9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이날 빌보드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최고의 듀오/그룹'(Overall Duo/Group)과 '핫 100 듀오/그룹', '빌보드 200 듀오/그룹', '빌보드 글로벌(미국 아티스트 제외)', '디지털 송 세일즈', '월드 앨범'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국제적으로 지배했다(BTS Dominates Internationally)"고 평가했다.

역대 흥행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이들은 열기를 내년 3월 서울에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방탄소년단은 감염병 사태로 2019년 10월 열린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콘서트 이후 국내에서는 대면 공연을 중단했지만 내년 3월 이곳에서 다시 공연한다. 10월24일 온라인 콘서트도 스타디움 투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같은 곳에서 진행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병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최고의 한 해'를 보내게 됐다.

국내외에서 '최대' '최고'의 타이틀을 잇달아 거머쥐며 2013년 데뷔 이후 정점에 달한 인기 속에 명성을 과시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그래미 어워드의 내년 초 무대만을 남겨둔 이들은 각종 수자로 2021년이 자신들에게 '최고의 순간'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팬들을 직접 만나며 펼친 콘서트로 400억원에 육박하는 티켓 판매고를 올렸다. 그야말로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했다.

중 개봉 빛장 연 '오! 문희'...사흘만에 누적매출 1억7780만원

이동욱, 현지 패션지 표지모델로 카이·세훈은 텐센트 어워드 참석

한국영화로는 6년 만에 중국에서 정식 개봉한 나문희 주연 '오! 문희'가 현지 극장에서 관객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향후 한국문화 콘텐츠에 대한 현지 빚장을 여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끈다.

5일 중국 박스오피스 플랫폼 이은의 집계를 보면 '오! 문희'는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까지 누적 95만8000여 위안(1억 7780여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3일 중국 전역 50여개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는 중국 전체 박스오피스 순위권에는 아직 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3일 6만2700위안, 4일 62만3700

위안 매출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영화가 2015년 9월 '암살' 이후 6년 만에 중국 극장에 간판을 내건 것이어서 자지 않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4일 시나닷컴이 "파스함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좋은 코미디 영화 속 나문희는 대단한 베테랑 배우"라는 '오! 문희' 리뷰를 게재하는 등 현지 언론도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문화 콘텐츠는 2016년 7월 한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 측의 한한령 장벽에 막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오! 문희'가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현지에서 정식 개봉함에 따라 향후 추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또 그동안 문을 닫았던 현지 한류스타들의 SNS 웨이보 계정도 지난날 중순 다시

문을 열었다. 배우 이동욱은 현지 패션지의 12월호 표지모델로 나섰다. 11일 열리는 '텐센트 뮤직 어워드'에는 그룹 엑소의 카이와 세훈이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텐센트 뮤직 어워드'는 중국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업체 텐센트 뮤직엔터테인먼트가 여는 가장 큰 연말 시상식 무대로 꼽힌다. 한국가수가 중국의 공식 무대에 나서는 것은 2019년 5월 비가 '아시아 문명 대화 대회' 참석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최근 흐름이 과연 한한령의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제2 중국 공산당과 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양국간 문화교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 향후 추이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서 실장은 "양국의 문화 콘텐츠 교



영화 '오! 문희'

류가 다시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은 내년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 연예관계자는 "아직은 조심스럽다"면서도 "한중 정상회담 추진 상황이 더욱 구체화한다면 중국 측의 한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국내선 주춤한 오디션 예능, 해외선 미친 존재감

다서 '케플러' '방과후 셸럼' 대박 채널A '청춘스타' 내년 11 스트리밍

아이돌 오디션 예능프로그램의 열기가 국내에서 주춤한 사이 해외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케이(K)팝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기대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손잡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도 생겨났다.

일본 최대 OTT 아베마는 9인조 신인 걸그룹 케플러의 새 예능프로그램 '케플러뷰'를 2일 공개했다. 이들은 10월 엠넷 '걸스플래닛999: 소녀대전'(걸스플래닛)으로 탄생했다.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일본 연예매체 아후재팬 등에 따르면 아베마는 '걸스플래닛'의 10월22일 마지막 회 스트리밍으로만 535만뷰를 기록했다. 프로그램의 현지 인기에 힘입어 후속 예능프로

램도 공개기로 했다. 케플러는 14일 데뷔를 앞두고 4일 스타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데뷔 일정을 잠시 미뤘다.

현재 방영 중인 MBC '방과후셸럼'은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이 더 좋다. 국내에서는 1%대(닐스코리아) 시청률에 머물지만, 유튜브 영상이 많게는 150만뷰를 넘겼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걸그룹(여자)아이들의 전소연이 인기 원동력으로 꼽힌다. 해외 팬덤을 갖춘 데다 독설에 가까운 심사를 펼쳐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몇

글창에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등도 전소연과 참가자를 응원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해외 시청자를 겨냥한 오디션 프로그램도 나온다. 채널A '청춘스타'는 일본 아베마와 협업을 거쳐 내년 봄 양국에서 공개된다. 일본 오리콘은 "좌절과 갈등, 우정과 희망 등 참가자들의 성장 과정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최종 수상자는 글로벌 활동을 위해 일본 대형 레코드사와 계약할 기회를 얻는다"고 보도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에스파, 폭스TV '닉 캐논 쇼' 한국가수 첫 출연

걸그룹 에스파가 9일(한국시간) 미국 폭스TV 토크쇼 '닉 캐논 쇼'(The Nick Cannon Show)에 출연한다. 한국가수로는 처음이다. 5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스파는 '닉 캐논 쇼'에서 히트곡 '새비지'(Savage) 무대를 펼친다. 에스파는 앞서 지난달 미국의 추수감사절 대규모 축제인 '메이시스 페레이드'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뒤 '닉 캐논 쇼'를 녹화했다.

'시실리 2km' 신정원 감독 별세...향년 47세



신정원 감독

영화 '시실리 2km'를 연출한 신정원 감독이 4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47세. 유족에 따르면 지병인 간경화로 오래 투병한 신 감독은 전날 고열과 호흡 곤란 증세로 응급실을 찾다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이날 숨을 거뒀다. 2004년 코미디와 공포 장르가 어우러지는 '시실리 2km'를 연출해 독특한 강한 개성의 재능을 인정받았다. 이후 '차우', '점쟁이들' 등을 연출했다. 지난해 개봉한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으로도 한 번 개성을 과시했다. 빈소는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6일 오전 10시30분이다.

'놀면 뭐하니?' 도토리 페스티벌 방청객 모집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가 '도토리 페스티벌' 공연을 앞두고 방청객을 모집한다. 5일 MBC는 공식 SNS를 통해 "7일까지 양케이트 이벤트를 통해 '도토리 페스티벌' 방청 응모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연은 15일 오후 6시 서울시 마포구 상암 MBC홀에서 열린다. 프로그램 출연자인 방송인 유재석·하하·미주가 그룹 '토요태'를 결성해 무대에 오른다. 가수 윤하, 그룹 에픽하이, 양정승&노누 등 2000년대 인기 SNS인 싸이월드 미니홈피 속 노래를 부른 가수들도 참여한다.

래퍼 트루디-KT 위즈 이대는 웨딩마치



트루디-이대은

래퍼 트루디(김진솔·28)와 KT 위즈 투수 이대은(32)이 결혼했다. 이들은 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결혼식을 열려고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 차례 예식을 연기했다. 트루디는 2015년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2'에서 우승해 이름을 알렸다. 이대은은 2007년 미국 사카고컵스에 입단해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했다.

김태희·서인국 등이 부른 캐럴 음원 10일 공개

배우 김태희·이완 남매, 서인국, 오연서, 이시연, 김정현 등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른다. 5일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소속 배우들이 캐럴 프로젝트 '메리메리 크리스마스데이'에 참여한다면서 "수익금 전액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철, 고준, 그룹 씨스타 출신 김다솜 등도 참여한다. 음원은 10일 낮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